

미세한 대상물을 보기 쉽게 할 것.

젊은 여성에게 안경을 끼도록 하는 일은 많은 경우 미감을 주지 않으므로 성공율이 적지만, 사실은 안경을 낀 후 작업에 익숙해지면 눈의 피로도 적어지는 사실은 명백하다.

마지막으로 눈이 피로해졌을때의 대책으로서

8. 안약의 사용과 깨끗한 물로 눈을 씻어주는 방법이 있으며, 점안액도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와 함께 세안할때 종종 깨끗한 물에 눈을 잘 씻도록 권장하는 것도 좋다. 각막의 표면에 붙어있는 눈곱이나 점액을 청소해

서 눈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9. 일상생활에서 늦은 밤까지 TV를 계속 본다거나 어두운 전등아래에서 책을 가깝게 읽는다든지, 요컨대 계속 눈을 혹사시키게 되는 습관을 없애는 일도 필요하므로 생활지도도 포함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형편을 취할 수가 없다.

10. 작업에 임하고 난 후 눈의 피로가 다른 사람보다 대단히 심하거나 근시로의 진행이 다른 사람보다 심한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작업배치전환을 시키도록 강구할 것.



정기이사회 개최

협회는 '89 년도를 마감하기 위한 정기이사회를 '89.12. 8 남산 타워호텔에서 개최하여 각종 업무현황 및 사업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아울러 '90년도 직원 보수인상안을 비롯하여 회원회비 조정안, 기타 인사, 보수, 직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 정 내 용
회비조정	보건관리자 40,000 원 → 40,000 원
	연구직 10,000 원 → 20,000 원
	보건담당자 20,000 원
	준회원 20,000 원
	입회비 5,000 원 → 10,000 원

직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회내 의학적, 기술적 업무에 대한 연구개발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제 신설 ○ 본부에 중앙분석실과 전산실 직제신설
인사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급에서 4급 승급시 필기시험 시행
보수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직 연봉제 규정 ○ 자녀학자금 보조 및 특수직종 수당신설

89년도 특수검진기관 실사종합평가회



지부총회 일정 및 장소

지부명	일 시	시 간	장 소
충 북	1.18(목)	11:00	청주관광호텔
대 전	1.18(목)	15:00	신입안전공단회의실
전 북	1.19(금)	15:00	코이호텔 2층
광 주	1.20(토)	11:00	파레스호텔
서 울	1.22(월)	14:00	전경련회관 3층 제 1 회의실
경 기	1.23(화)	11:00	인양상공회의소 4 층연구실
인 천	1.23(화)	15:00	인천상공회의소 7 층
대 구	1.31(수)	12:00	수성관광호텔
경 남	2. 1(목)	15:00	로얄호텔
부 산	2. 2(금)	18:30	클라운호텔 (석류홀)

전국 47개 특수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한 특기협 자체 심사결과에 대한 종합평가회의가 특수검진기관장 및 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구체적 지적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매년 검진내용에 있어서 개선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책임전문기관으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기관들이 일부 있어서 검진기관 지정방법에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특수검진 및 직업환경측정일정이하 반기에 편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업주의 요청 태도에 지역기관들이 감당치 못하여 사업주의 불만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검진기관들의 사업수행능력을 증가시켜 운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한편 검진내용에 있어서 다소 부실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90년도 초에 검진 및 측정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검진기관의 자체능력을 배양하고 특수검진기관의 관할지역을 기관의 능력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 또는 신규 지정하되 협의회의 판단의견에 따라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와 함께 조규상 회장은 특수검진기관들의 검진자세에 대해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산업사회질서에 적합한 검진업무수행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신뢰받는 기관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협회 지부총회 개최

협회 '90년도 정기총회를 2.28(수) 15:00 팔레스호텔에서 개최기로 하였다. 이에 앞서 지부총회가 1.18 ~ 2.2 사이에 각기 개최 예정인 바 금년은 임기총회로서 일부지역에서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다소의 변화를 예상케 하고 있다.

한편 본부 총회시에 대한산업의학회와 공동으로 춘계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반검진용 흉부 X-선 검사필름 규격조정

노동부는 일반건강진단시 흉부 X-선 검사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현행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규정에 따른 흉부 X-선 간접촬영용 필름 규격을 60mm 이상에서 70mm 이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의료기관에 사용중인 60mm 필름 사용 검사기는 노후로 인해 건강진단의 정밀도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60mm가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개정기로 하고, 일반건강진단 실시 의료기관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통지하여 이에 대처토록 할 예정이다.

노동부, 90년도 산업보건시책 방향 밝혀

노동부는 90년대의 산업보건의 여건을 전망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요시책을 펴나갈 계획임을 밝혀다.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정비보완

■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90년에는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산

업안전보건제도를 대폭 정비보완할 계획이며 그 주요내용은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재정비 하고 사업장별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 노·사가 준수하게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므로써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신규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경우 사전에 유해성을 심사하고 일부 유독성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제조, 사용시 허가를 받도록 하며,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자체조사를 하여 안전하게 사용·관리 하도록 함

■ 작업환경개선을 위하여

-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석면, 납 등에 대한 보건기준을 별도 분리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 VDT작업등 사무실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기준과 사업장의 온·습도, 휴게, 청결등 보건위생에 관한 기준을 새로 규정
- 작업환경측정결과와 작업환경개선의 연계추진

■ 근로자 건강진단 제도에 있어서는

- 건강진단결과를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제도를 설정
- 석면등 발암성물질과 장기간이 경과된 뒤에 증상이 나타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이직시에 건강관리수첩을 교부, 이들에 대한 평생 추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

또한 정부의 지도감독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 전국 42개 지방노동관서에 모두 산업안전과를 설치
- 기술적 공무원을 대폭증원 배치하는 동시에 이들에게도 사법권을 부여할 계획임

재정면에 있어서도 매년 산특회계중 5%이상을 산업재해 및 직업병예방사업에 사용

'90 산업보건행정시책으로서는

- 불량작업환경을 조기에 일소하기 위하여
 - '90.7~8월에 실시한 전국 5인이상 제조업체에 대한 작업환경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하위등급업체부터 단계적으로 집중관리
 - 작업환경관리실태 4~5 등급업체중 2000개소를 선정 집중점검을 실시
 - '89년도 집중점검한 업체, 작업환경측정결과 허용기준초과업체중 1000개소를 선정, 지방노동관서 장비를 활용 근로감독관이 직접 확인점검을 실시
 - 진폐의 근원적 예방을 위하여 광산에 대해서는 갱내 작업환경실태를 면밀히 조사·평가하고 상응하는 개선대책을 수립
-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 화학물질 취급근로자 건강진단 년 2회 실시가 정착되므로 적극 지도
 - 건강진단지정기관에 대한 검진실태 점검을 강화하여 부실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
 - 건강진단이 연말에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지방노동관서가 월별균등 실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적극 지도
-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등 근로자의 관심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시 근로자 대표의 입회와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해 주도록 적극 지도

제 6 차 한일산업보건학술 집담회 개최 안내

제 6 차 한일산업보건학술집담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 개최일시 : 1990. 4. 2(월) ~ 4. 3(화)
- 개최장소 : 日本 北九州 산업의과대학 라마치니 홀
- 참가비 : 10,000 ¥

인천지부, 대구경북지부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안내

당 협회 인천지부, 대구경북지부의 사무실 이전에 따라 주소 및 전화번호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립니다.

인천지부

이전주소 : 403-230

인천직할시 서구 가정동 513-18

전화번호 : 032)572-7501 교) 520
032)573-5095 직통

대구경북지부

이전주소 : 703-040

대구직할시 서구 비산7동 1809
(옥일빌딩 4층)

전화번호 : 053) 351-1911/3

FAX번호 : 053) 351-1914

산업보건계 소식

※ ... 연세대학교 직업의학연구소(소장:차봉석)와 산업보건연구소(소장:문영한)가 공동으로 연구한 “산재보험환자의 진료비 심사업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노동부 의뢰)”에 대한 보고서가 11월말에 발행되었다.

※ ... 연세 원주의대 예방의학교실 이명근 강사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사무소 주최로 '89. 11.15~11.30 간 마닐라에서 개최된 “보건정보관리” 회의에서 WHO 자문위원으로서 주제강연 및 보건정보관리학에 대해 강의하였으며, 금번에 “산재보험환자의 재원기간 및 진료비 분석”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 ... 근로복지공사 직업병연구소(소장:정호근)는 '89.12.15 10:00~14:00 동사 중앙병원 강당에서 “제조업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의 실태와 관리현황 및 대책”에 관한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 ... 근로복지공사 직업병연구소 정호근 소장은 지난해 동해시에 위치했던 진폐연구소가 직업병연구소로 기구가 확대 개편되면서 인천으로 소재지를 옮기는등 바쁜 일정속에서 근간에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 동창회장에 선출되어 중책을 맡게 되었다.

※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노재훈 조교수는 미국 신시내티 의과대학의 캐더링 직업병연구소에 2년간 연수차 금년 1.19일출국한다.

노재훈 교수는 그동안 본 산업보건지의 편집위원으로서 많은 수고를 해오셨으며, 앞으로 미국에 계시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현지의 산업보건 및 산업의학분야의 최신정보를 당 편집실에 신속하게 전해올 예정이며, 본 협회지를 통해 독자들에게 이를 전달할 계획이다.

※ ... 가톨릭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세훈 조교수는 지난 2년간 핀란드의 산업의학연구소에서 연구를 마치고 금년 1월말경 귀국할 예정이다.

※ ... 인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채언 교수가 국비 해외과건 연구교수로서 Havard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의 Environmental Sciences and Physiology 부서에서 1년간 학술연구를 하기위해 '89.11.22일 출국하였다.

※ ... 순천향대학교 부설 구미병원 건강관리과장 한구용 부교수는 현재 일본산업의과대학 연구소에서 연구중이며, 1990.1월부터 2.2까지는 일본 경도공장보건회에서 연수할 예정이다.